

Neighbor

최고의 삶을 위한 라이프스타일 매거진 <네이버>



SPECIAL THEME
**LITTLE
NEIGHBORS**

5

MAY 2013



HUBLOT

위블로 클래식 퓨전 엑스트라 씬 스켈레톤 킹 골드,
위블로에서 자체 제작한 엑스트라 씬 스켈레톤 무브먼트,
킹 골드 케이스, 스켈레톤 다이얼, 파워리저브 90시간,
블랙 러버위의 엘리게이터 스트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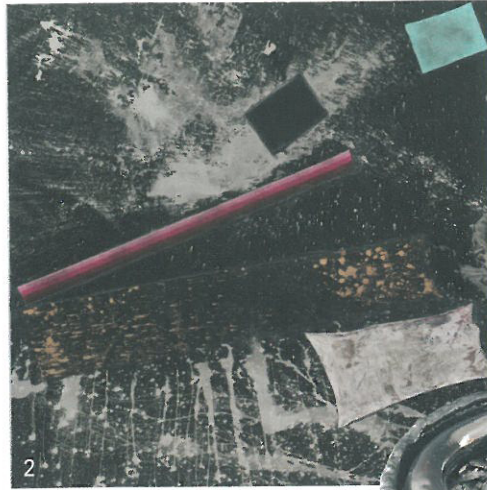
너무 자유분방한가요?

그는 작가이기에 앞서 명민한 이론가일지 모른다.
 풀어헤친 금발 머리에 스프레이 프린트된 청정 패션의
 이 자유분방한 아티스트의 작품에 관한 변을 듣고
 난 후, 그를 왜 세계 미술계가 주목하는지 알아버렸다.
 스틸링 루비의 첫 한국행이다. Editor 설미현

Photographer 고운 Cooperation 국제갤러리(02-735-8449)



- 1 세계 미술계의 구애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스틸링 루비.
- 2 BC(3977), 2012, Collage, Paint, Bleach, Glue, Fabric on Wood, 213.4×213.4×5.1 cm ©Sterling Ruby Courtesy of the Artist and Kukje Gallery.
- 3 Basin Theology / Ephedra Expansion, 2012, Ceramic, 33×99.1×99.1cm ©Sterling Ruby Courtesy of the Artist and Kukje Gallery.
- 4 SP223, 2012, Spray Paint on Canvas, 243.8×213.4×5.1cm ©Sterling Ruby Courtesy of the Artist and Kukje Gallery.
- 5 SP235, 2013, Spray Paint on Canvas, 254×365.8×5.1cm ©Sterling Ruby Courtesy of the Artist and Kukje Gallery.
- 6 Debt Basin 2, 2011, Bronze +Stainless Steel Pedestal, 243.8×243.8×50.8cm ©Sterling Ruby Courtesy of the Artist and Kukje Gallery



"이 옷요? 제가 직접 만든 옷이에요. 패브릭 작업 시 많은 양의 천을 표백하는데 그중 마음에 드는 천을 골라 만들었죠. 물론 하이패션과는 거리가 멀죠?(웃음)" 미국 출신의 아티스트 스티어링 루비(1972~). 아직 우리에게 낯선 이름이지만 세계 미술 시장에선 이미 그를 향한 구애가 뜨겁다. 5월 10일까지 국제갤러리에서 열리는 개인전은 때문에 더욱 기대를 모은다. 이번 전시를 통해 선보일 작품은 스프레이 회화, 도자기, 브론즈 조각 작품인 Basin(대야) 연작, 콜라주 작업 등 10여 점이다.

"도자기라는 매체는 참으로 번덕스럽죠. 굽는 과정에서 3분의 2 정도는 터져버리죠. 대야 안의 내용물들은 가마 속에서 터져버린 잔재를 담은 거예요. 마치 무덤 같기도 하고 고고학적이고 나아가 구원의 의미를 담고 있죠." 세라믹과 브론즈로 제작된 그의 '대야' 안에는 미국인 혹은 사람들의 혼란, 두려움 등 모든 것들이 담겨 있다. 대야 안에 그것들을 담아내고 펼쳐냄으로써 작가 자신도, 대중도 결국엔 치유와 구원을 떠안게 된다.

얼핏 유희처럼 보이는 'BC(3977)'는 골판지 위에 낡은 천 조각을 이어붙인 콜라주 작업이다 "청소년기를 펜실베이니아의 작은 시골마을에서 보냈는데, 미술이 뭔지도 모를 깜깜 시골에서 놀라운 시각적 경험을 하게 됐어요. 어느 날 아미시(Amish)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오색찬란한 조각보를 보고 쿨트에 빠지고 말았죠." 아미시란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전통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로, 그들은 시집을 갈 때 대대로 쿨트 이불을 물려주는 오랜 전통이 있다. 1950년대 미국 남부의 농부들 역시 입다가 해진 옷을 이불로 만들어 사용했는데, 그 기하학적 무늬는 놀라울 따름이라고, 도자기, 쿨트 등 그의 작업은 서로 다른 듯 보이지만 '리사이클'이라는 맥락 안에서 일맥 상통하며 이는 1950년대의 공예 운동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회화를 전공했지만 '회화는 이제 끝장이다'라는 생각에 더 이상 회화 작업을 하지 않았죠. 그런데 2000년 초반 LA로 거주지를 옮기면서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됐어요." LA는 알다시피 갱단과 마약 거래가 성행하는 위험 지역이다. 그들은 영토 싸움을 자주 벌이는데 자신들의 영역 표시를 위해 벽에 스프레이로 흔적을 남긴다. 마치 그래피티처럼. "시 당국은 매일 밤새 이 스프레이 흔적을 지우죠. 아침엔 다시 흰 벽이 되어 있고..., 그렇게 칠하고 지우기를 반복한 후 남겨진 스프레이 흔적에서 영감을 받았어요." 루비의 스프레이 회화는 그렇게 탄생했다. 스프레이 페인트를 이용한 그의 회화는 모네의 '수련'을 떠올리게 한다.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 평온한 풍경. 강, 마약 등 미국을 가득 채운 병리적 사회 현상은 그의 스프레이 페인트와 함께 아름다운 한 폭의 풍경으로 탈바꿈된다.

다양한 재료와 자유로운 표현 방식을 통해 미국 사회의 뿌리 깊은 병리 현상을 꼬집고 그 해결책을 모색해가는 그의 작업은 난해하고 자유분방해 보이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명쾌한 이론 덕분에 더욱 깊이 있게 다가온다. 미술은 어쩌면 아름답게 포장된 '이론'이다. III

